

「선박안전본부」 | 고객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



▲ 김종대 본부장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대고객서비스를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업무 등 우리 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종대 본부장은 “선박안전본부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원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고객중심 경영에 부합되도록 최상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선박안전본부는 검사원의 역량강화와 선박검사에 관한 토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부를 확대·개편한 결과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주요한 성과로는 16,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에 대하여 차질없는 검사집행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7년도 해양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임으로 내수면 또는 해수면에서 레저활동에 사용되는 모타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코리안리(주)와 삼성화재 보험사 등 국내 10개 민영보험사로부터 선박보험 가입시 선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현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동안 해외조업어선의 경우 정부검사와 현상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이중검사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무료교육, 설, 추석 등 명절맞이 기관 무료점검서비스 등 대고객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한편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의사결정 회의체인 고객만족추진조직의 운영, 도서·낙도지역 고객에 대한 선박검사 도우미 제도인 “고객만족(CS)경영서포터즈” 제도 운영, 24시간 고객응대 가능한 ‘서비스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우리 공단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계속적으로 검사·검증기관 중 상위그룹에

이번호 탐방의 주인공은 우리 공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안전본부’다. 김종대 본부장을 비롯해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선박안전본부는 안전기획팀(팀장 정달성), 선체제도팀(팀장 양원수), 기관제도팀(팀장 정성화), 고객지원팀(팀장 임서혁)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박안전본부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박검사에 관한 기술지원, 선박안전 관련 법령 및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정비, 검사원의 기술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선박검사에 관한 각종 검사지침·가이드북·검사매뉴얼 등의 제작·배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 어선무상점검서비스 실시

우리공단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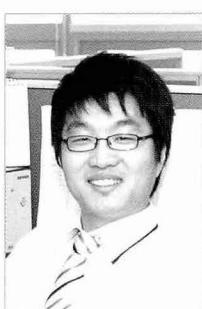
Best KST • 바다, 배 그리고 사람의 안전

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박안전본부는 검사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검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사원의 전문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교육훈련 로드맵에 따라 전문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해 선박검사관련 규정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선박검사에 필요한 한 검사지침, 검사가이드북, 검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여 선박검사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새로이 검사대상선박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대한 차질없는 홍보를 통하여 검사집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무료특강, 설, 추석 등 명절맞이 기관 무료점검서비스 등을 확대 실시하고, 고객만족경영의 안정적인 정착 및 유지 발전을 위해 고객서비스현장의 체계적인 정비, 전 직원의 고객만족서비스 체질 개선,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 활성화 등 고객관계관리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객감동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종대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우리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고의 검사기술단체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해 줄 것과,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처럼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최고의 KST인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 People Inside



고객지원팀 장현태 대리

모든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객지원팀의 마스코트인 장현태 대리는, 입사 후 인천지부에서의 다양한 검사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고객으로부터 공단이 신뢰·사랑받을 수 있도록 고객관계관리업무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사랑나눔회의 총무로서 해양사고 선원유가족 및 어려운 가정의 소년소녀가장 학비지원 등의 다양한 후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슴 따뜻한 직원이기도 하다. 매사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가 철칙인 장 대리는 “맡은 분야에서 꼭 최고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앞으로 공단의 밝은 미래가 한층 기대된다.

안전기획팀 이경열 주임

이제 입사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주임은 팀에서도 막내이지만, 우리 공단의 검사원 중 가장 어린 검사원이기도 한다. 해양사고, 품질 및 경영평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열 주임은 입사 후 1년간의 시간이 지금까지 그 어떤 시간보다 빨리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얼마 안되는 기간동안 업무에 대한 중압감, 성취감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한다. 업무에 있어서는 베테랑 검사원처럼 세밀하고 노력하며, 업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입직원처럼 풋풋하고 기발한 면을 가진 KST인이 되고 싶다는 이경열 주임은 “직원간의 가족 같은 분위기와 놀라운 업무협조로 우리 공단의 앞날이 더욱더 밝아질 것”이라 말해 동료직원들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다.



/ 취재 : 기획홍보팀 황주원